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1. No. 2 (2024) pp.199~214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과 인지 기제

임 수 진
(영남대학교)

Lim, Sujin. 2024. The Sign Language Expressions of Problem-Solving and Its Cognitive Mechanisms.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1*(2), 199-214. This paper divides the problem-solving process into six main stages: problem identification, information gathering, analysis, comprehension and judgment, solution derivation, and problem resolution. It then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corresponding sign language expressions in Korean Sign Language (KSL). Through this systematic approach, the study aims to elucidate the cognitive mechanisms underlying sign language expressions in the context of problem-solving in KSL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s of sign language and their abstract meanings. The investigation reveals several key characteristics. First, ontological metaphors, which conceptualize abstract concepts as concrete objects, are most frequently employed in the metaphorical mappings of sign language. Second, the sign language expressions related to problem-solving are predominantly action-based iconic signs. Third, conceptual metonymy and metaphor are the primary cognitive mechanisms for constructing the abstract meanings of these expressions. Additionally, like spoken language, sign language involves complex cognitive processes. These include metonymy, metaphor combined with metonymy, multiple interacting metaphors, multiple metonymies combined with a metaphor, metonymy combined with multiple metaphors, and other intricate combinations.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Metonymy, Iconicity, Cognitive Mechanism

1. 들어가기

수어(sign language)는 농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자연 언어이다. 손동작,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적·공간적 언어이자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문법과 어휘를 가진 하나의 체계화된 언어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어가 문제 해결 과정의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하는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수어의 형태와 의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Stokoe(1960)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수어의 기본 단위를 손의 형상(handshape), 위치(location), 운동(movement)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수어가 제스처의 집합이 아닌 음성 언어와 유사한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언어임을 입증하면서 수어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수어의 문법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음성 언어와 비교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Deuchar 1990; Liddell 1984; Padden 1988). 이후 Emmorey(1996)에서 수어가 뇌의 언어 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수어 사용자와 비수어 사용자의 인지적 차이를 분석하는 등 수어의 복잡한 언어적 구조와 인지적 측면이 탐구되었다. 수어 사용자들이 은유적 사고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수어의 도상성과 은유적 측면을 분석하여 의미 구성과 생산에 관련된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려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수어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Meir and Cohen 2018; Taub 2001; Wilcox 2000). 국내에서도 수어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음운, 형태, 통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김희섭 1996; 윤병천 1997; 남기현 2007), 최근에는 수어의 의미 연구, 특히 은유적 의미 확장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수어의 형태와 의미 간의 동기화 양상을 고찰한 임지룡·송현주(2015), 신체어를 중심으로 한국 수어와 중국 수어와의 비교·대조한 석수영(2016), 한국 수어의 시간 은유의 양상을 살펴본 최화니(2019), 한국 수어 중 A형 수어의 도상성과 은유적 의미를 분석한 조주연·정유진(2023), 한국 수어 [소화하다]가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된 사례를 분석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함으로써 은유적 사상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확인한 최영주·양선아(2023), 한국수어에 나타나는 공간도상성이 [사회적 지위는 위]라는 은유를 통하여 추상적 영역까지 확장됨을 발견한 이지연·최영주(2024)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수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자 새로운 주제인 문제 해결 과정[1]의 추상적인 어휘 표현과 의미 형성의 인지 기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로 은유의 유형에 따라 수어를 분석한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어휘”에 따라 어떠한 인지 기제가 작용하여 수어의 의미를 형성하는지 거꾸로 접근함으로써 수어 또한 비교적 간단한 인지적 과정에서부터 환유 또는 은유, 환유와 은유, 은유와 또 다른 은유가 결합된 복합적 인지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2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개념적 은유와 환유, 수어의 도상성과 이중사상을 간략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과 의미형성의 인지 기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어와 의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지는 수어 표현들의 특징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논문을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개념적 은유와 환유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우리의 일상적 사고와 행위 전반에 관여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지 기제 중 하나이다 (Barcelona 2000; Kovecses 2002; Lakoff and Johnson 1980/2003; Lakoff and Turner 1989; Ungerer and Schmid 1996). 개념적 은유는 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영역(target domain)과 보다 구체적이며 경험에 기반한 근원영역(source doamin)으로 구성되며, 두 영역 간의 상호 연관성과 유사성에 기초한 체계적 사상(mapping)으로 목표 영역의 추상적 개념이 근원 영역의 구체적 개념을 통해 쉽게 이해된다. (Fauconnier 1997; Gibbs 1994; Kovecses 2002; Knowles and Moon 2006; Lakoff and Johnson 1980/2003).

또 다른 주요한 인지 기제인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는 동일한 개념적 영역에서 인접성(contiguity)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 개념에 그와 관련된 속성을 지닌 근원 개념이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 과정이다. 따라서 개념적 환유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한 개념이 다른 한 개념을 지

1) 본고에서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파악, 정보 수집, 분석, 이해 및 판단, 정답 도출, 문제 해결이라는 6가지 단계의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시하거나 대표하는 방식이다(Panther and Thornburg 2007: 242).[2)]

2.2 수어의 도상성과 이중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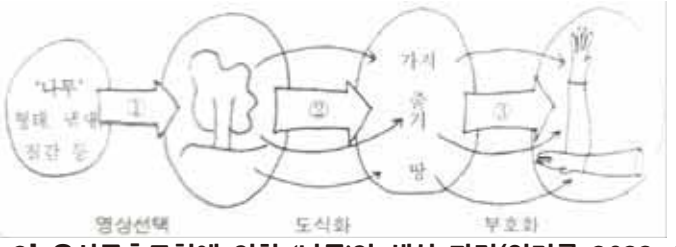
도상성(iconicity)이란 언어의 구조(형식과 형태)와 의미(내용)간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음성 언어에서는 "쨍그랑"처럼 실제 소리를 모방한 의성어나 "흔들흔들"과 같이 동작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의태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어의 예로서는 안경, 나비 등을 들 수 있는데, 한국 수어의 '안경'은 안경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고, '나비'는 나비가 날개짓하는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는 점에서 수어의 형태와 의미가 도상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상성은 정보를 시각과 공간의 양식으로 구성하는 수어의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이다(Willcox 2007).



[그림 1] 한국 수어 '안경', '나비'

Taub(2001: 44)는 도상성이 수어의 어휘 형성에 관여하는 과정을 유사구축모형(analogue-building model)으로 설명하였는데, 수어의 어휘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하였다: 영상 선택(image selection), 도식화(schematization), 부호화(encoding).

2) 환유적 관계의 일반적 표기는 다음과 같다: X STANDS FOR Y 혹은 약식 X FOR Y (Panther and Radden 1999: 18-19). Langacker(1993: 30)는 이 개념적 환유를 참조점 현상(a reference point phenomenon)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조점'이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지각상 현저히 나타나는 개념적 실체를 뜻한다.



[그림 2] 유사구축모형에 의한 '나무'의 생성 과정(임지룡 2022: 743 재인용)

나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구체적 사물로서 유사구축모형에 따라 도상적 사상만으로 의미가 형성되는 경우 외에, 추상적 개념은 도상성을 기반으로 부호화하되 이중 사상을 거쳐 수어로 표현된다(Taub, 2001: 103). 여기서 이중 사상(dounble mapping)이란 도상성이 은유의 근원영역에 사상되는 도상적 사상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그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에 사상되는 은유적 사상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Taub(2001)는 수어 [이해시키다(THINK-PENETRATE)]를 예시로 이중 사상을 다음 [표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수어소는 근원 영역의 요소들과 대응하고 이는 다시 목표영역의 요소들과 대응하면서 수어소의 형태가 목표영역의 추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표 1] 미국 수어 [이해시키다]의 이중 사상(Taub 2001: 103)

도상적 사상	은유적 사상	
수어소	근원영역	목표영역
I형 우세손	물건	생각
이마	머리	마음: 생각의 장소
I형 우세손이 이마에 댐	머릿속에 있는 물건	이해된 생각
I형 우세손이 수신자 쪽으로 이동	사람에게 물건을 보냄	사람에게 생각을 전달
B형 손	장애물	의사소통의 어려움
I형 우세손이 B형 손가락 사이를 뚫음	장애물을 뚫음	어려움에도 불구 의사소통에 성공함
농인의 위치	보내는 사람	생각의 소유자
수신자의 위치	받는 사람	생각을 알고자 하는 사람

3.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과 인지 기제

이 장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의 추상적 어휘들을 수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고, 수어의 형태와 의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인지 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 파악, 정보 수집, 분석, 이해 및 판단, 정답 도출, 문제 해결.[3)]

3.1 문제 파악



[그림 3] 문제 파악[4)]

[그림 3]에서 '문제'는 위로 향하게 편 왼손바닥에 1·2·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등을 대고 안으로 당기며 1·2·5지 끝을 맞댄다. '파악'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으로 코 왼쪽을 오른쪽으로 스쳐 내고, 5지를 펴서 바닥으로 코 오른쪽을 왼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은 왼쪽을 보도록 하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위쪽으로 편 왼 손바닥 위로 이동시키며 주먹을 쥔다.

수어 '문제'는 책 여기저기서 문제를 발췌하는 동작을 모방하여 나타낸 도상적 수어이다. 종이에 실려있는 물리적 개체로서의 문제를 동작에 기반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나타낸다.[5)] 이렇게 의미가

3) Schank and Abelson(1977)은 우리가 일상을 이해하는 기초 구성 단위로 스크립트(script)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단계별로 구체화한 것인데, 문제 해결 스크립트에는 '문제 직면, 문제 해결 노력, 문제해결'이라는 3단계로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조영순 2022:108 재인용)

4) 본고의 수어 그림은 모두 한국수어사전(https://sldict.korean.go.kr)을 참조하였다.

확장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문제가 문제 상황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적 환유([부분은 전체])가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파악’은 콧방귀를 양쪽으로 뀌는 동작을 모방한 수형으로 시작되는데, 콧방귀라는 하나의 동작이 그 동작을 하는 전체 상황(개념적 환유[부분은 전체]), 즉 콧방귀를 뀔 정도로 쉽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콧방귀를 뀔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수어 ‘잡아채다’가 결합되는데, 수어자 앞 공간의 보이지 않는 추상적 존재를 잡을 수 있는 물건으로 개념화하고(존재론적 은유 [문제는 물건]), 이를 수어자의 공간 밖에서 안으로 가져와 잡음으로써 추상적 개념인 ‘문제’의 존재가 확립된 동시에 상태의 변화를 공간상의 위치로 이해하여(구조적 은유[상태는 위치]) 밖에 있던 물건을 손안으로 들이면서 문제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파악의 상태로 변화됨을 보여준다. 수어 ‘문제 파악’의 인지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수어 ‘문제 파악’의 인지 기제

수어		인지 기제	의미
문제		개념적 환유 [부분-전체]	구체적 문제 → 추상적 문제
파악	콧방귀	개념적 환유 [부분-전체]	쉽다
	잡아채다	존재론적 은유 [문제는 물건]	물건을 잡다
		구조적 은유 [상태는 위치]	문제를 파악하다

3.2 정보 수집



[그림 4] 정보 수집

5) 수어 ‘문제지(문제+종이)’와 ‘문제아(문제+아동)’를 살펴보면 물리적 문제와 추상적 문제를 나타내는 수형이 [그림 3]의 문제와 동일하다.

[그림 4]에서 ‘정보’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오른쪽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위로 향하게 펴서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수집’은 왼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오른손 등을 위로 향하여 손가락을 끌어들이며 주먹을 쥐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수어 ‘정보’는 듣고 보는 행위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이다. 정보를 지각하는 행위로서 듣고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지각 행위의 특징적인 한 부분이다. 듣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귀’라는 신체 부위가 소리를 인지하는 수단으로서 듣는 기능을 대표하는(개념적 환유[수단-기능]) 동시에 실체가 없는 추상적 정보를 손가락으로 귀에 들어가는 동작을 함으로써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존재론적 은유[정보는 물체]). 이어서 보는 행위는 대상을 좇아 시선이 따라 움직이는 동작으로 오른 주먹의 1·2지는 사람의 두 눈을 의미하는데 신체 일부인 손가락이 또 다른 신체의 일부인 눈을 대신하여 표현한 것이다(개념적 환유[부분-부분]). 보는 행위 또한 추상적 정보가 형체를 가진 개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개념화는 손으로 긁어모으는 동작을 모방한 수어 ‘수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존재론적 은유[정보는 물체]). 긁어모으는 동작은 이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결과에 해당하는 수집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개념적 환유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라 할 수 있다.

[표 3] 수어 ‘정보 수집’의 인지 기제

<table>
<tr><th colspan="2">수어</th><th colspan="2">인지 기제</th><th>의미</th></tr>
<tr><td rowspan="2">정보</td><td>듣는 행위</td><td>개념적 환유
[수단-기능]</td><td rowspan="2">존재론적
은유
[정보는 물체]</td><td>귀 → 듣다</td></tr>
<tr><td>보는 행위</td><td>개념적 환유
[부분-부분]</td><td>두 손가락
→ 두 눈
→ 보다</td></tr>
<tr><td>수집</td><td>긁어모으다</td><td colspan="2">존재론적 은유 [정보는 물체]
개념적 환유 [행동-결과]</td><td>정보를 수집하다</td></tr>
</table>

3.3 분석



[그림 5] 분석

[그림 5]에서 '분석'은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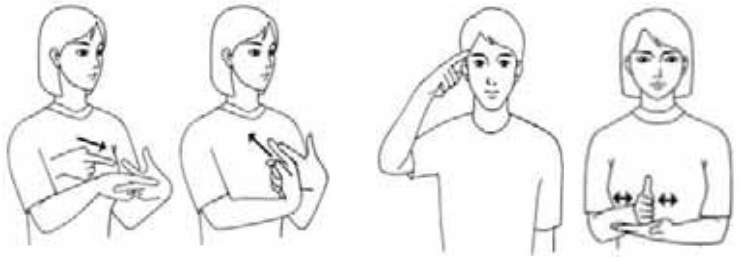
[그림 5]에서 수어 '분석'은 갈라 헤치는 동작으로 물리적인 개체를 분해하여 살피는 동작이다. 분석이란 복잡한 현상이나 개념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것으로[6], 수어 '분석'은 의미의 한 부분이자 분석에 대해 가장 현저하게 지각되는 과정인 '분해' 과정을 선택하여 물건을 갈라 헤치는 동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수어의 형태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적 환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택된 수형이 '분석'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추상적 개념의 분석을 물건의 해체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구조적 은유[분석은 해체]). 즉 본고에서 추상적 개념을 문제로 보았을 때, 추상적 문제를 하나의 구체적 물건으로 보고, 문제의 구성요소를 물건의 개별 부품으로, 문제의 분석을 물건의 분해로 인식함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어 '분석'은 문제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전체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4] 수어 '분석'의 인지 기제

수어		인지 기제	의미
분석	갈라헤치다	개념적 환유 [부분-전체] 존재론적 은유 [문제는 물건] 구조적 은유 [분석은 해체]	복잡한 개념을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일

6) 분석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3.4 이해 및 판단



[그림 6] 이해 및 판단

[그림 6]에서 '이해'는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벌린 다음, 그 사이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안에서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는다. '판단'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 낸다.

수어 '이해'는 꿰뚫는 동작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이다. 왼손 1·2지 사이에 오른손 1지를 밖으로 끼웠다 다시 안으로 끼우는데, 오른손 1지는 물건을 뜻하며, 밖으로 끼우는 것은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화자는 장벽을 통과하여 나간 물건을 다시 화자에게 돌려보낸다. 이러한 도상적 사상은 은유적 사상으로 연결되는데 즉, 추상적 개념인 정보를 물건으로 개념화하여(존재론적 은유[정보는 물건]) 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뚫고 나감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알게 됨을 의미한다(구조적 은유[어려움은 장벽]). 이를 다시 화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은 알게 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구조적 은유[이해는 소유]), 수어 '이해'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어 '판단'은 머리를 자극하는 동작을 모방한 수형으로 시작되는데, 머리는 생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장소가 기능을 대표하는 개념적 환유에 의해 머리를 자극하는 동작은 곧 생각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생각'은 갈라 나누는 동작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 '구분'과 결합하여 화자는 추상적 개념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물리적 개체로 인식하고(존재론적 은유[생각은 물체]), 이러한 물리적 개체를 논리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표 5] 수어 '이해 및 판단'의 인지 기제

수어		인지 기제	의미
이해	꿰뚫다	존재론적 은유[정보는 물건]	
		구조적 은유[장애는 장벽]	깨닫고 알게 됨
		구조적 은유[이해는 소유]	받아들임
판단	머리를 자극하다	개념적 환유[장소-기능]	생각
	나누다	존재론적 은유[생각은 물체]	구분, 구별하다

3.5 정답 도출



[그림 7] 정답 도출

[그림 7]에서 '정답'은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므린 오른손을 얼굴 쪽으로 당기며 손을 편다. '도출'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모로 세워 대고 밖으로 내민다.

수어 '정답'은 곧은 것의 형태를 모방한 외형 기반 도상성과 상대방의 말을 받는 동작을 모방한 동작 기반 도상성을 결합한 수어이다. 곧음이 물리적 세계에서 바르게 정렬된 상태, 안정성을 주는 형태이자 명확한 경로라는 속성을 통하여 올바른 상태이자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상태, 오류 없는 명확성을 나타낸다. 이는 논리적 또는 도덕적 올바름을 형태적 곧음과 공간상의 직선성을 연결해 이해하려는 방식(구조적 은유[옳음은 곧은 것])에 기초한다. 상대방의 말을 받는 동작은 상대방이 답을 하는 경우, 보이지 않는 답변을 잡을 수 있는 물건으로 개념화하고(존재론적 은유[답변은 물건]) 화자가 오른손으로 잡아 이를 자신의 얼굴 쪽으로 가져가 던짐으로써 화자 본인에게 상대방의 답을 보내는

동시에 받는 것을 의미한다. 수어 '도출'은 손에 얹어 올려내는 동작에 기반한 도상적 수어이다. '정답 도출'에서는 추상적 개념인 정답을 물건으로 개념화한 후, 이를 손에 얹어 밖으로 내미는데 화자의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보냄으로써 정답이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태를 안과 밖의 공간적 방향으로 이해한 것인데, 잠재적 또는 미결정된 상태는 내부로, 확정되거나 실현되는 상태는 외부로 개념화하여 수어 '도출'은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정답이 내부의 잠재적 상태에서 외부로 나와 실현되는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방향적 은유[잠재성은 안, 실현성은 밖]).

[표 6] 수어 '정답 도출'의 인지 기제

수어		인지 기제	의미
정답	곧음	구조적 은유 [옳은 것은 곧은 것]	옳은 답
	말을 받다	존재론적 은유 [답변은 물건]	
도출	손에 얹어 밖으로 내밀다	존재론적 은유 [정답은 물건]	
		방향적 은유 [잠재성은 안, 실현성은 밖]	확정되고 실현됨

3.6 (문제) 해결



[그림 8] 해결

[그림 8]에서 '해결'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X'자로 포갰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수어 '해결'은 얽힌 손을 풀어 버리는 동작에 기반한 수어인데, 손은 매듭을 나타내고, 이것은 다시 '문제'를 의미하게 된다. 손을 X자로 포개놓은 것은 실

이 엉키거나 꼬인 상태를 나타내고, 이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엉키거나 꼬인 실(매듭)을 풀어내는 것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은유적 사상은 먼저 추상적 문제를 매듭으로 개념화하고(존재론적 은유[문제는 매듭]), 이어 문제 해결 과정을 매듭을 푸는 과정(구조적 은유[문제 해결은 매듭 풀기])으로 이해하는데 기초한다.

[표 7] 수어 '해결'의 인지 기제

수어		인지 기제	의미
해결	얽힌 손을 풀다	존재론적 은유 [문제는 매듭] 구조적 은유 [문제 해결은 매듭 풀기]	복잡한 문제를 잘 처리함

4.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의 특징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들과 의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발견된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들의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들을 살펴보면, 수어의 형태와 의미를 동기화시키는 인지적 과정에서 대부분 추상적 개념을 하나의 구체적 '물건'으로 개념화한다. 즉, 문제 파악, 정보 수집, 이해 및 판단, 정답 도출, 문제 해결의 각 단계에서 문제, 정보, 생각, 정답 등은 추상적 개념으로 존재론적 은유에 의해서 모두 [물건]으로 개념화되며 이러한 존재론적 은유가 수어의 은유적 사상에서 매우 빈번히 발견되는 인지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상성은 수어의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대개 수어는 외형 기반 도상적 수어와 동작 기반 도상적 수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들은 거의 '동작 기반' 도상적 수어이다. 그 이유는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들이 추상적 어휘로서 물리적 지시물(referent)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태를 모방할 수 없고, 따라서 추상적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동작'을 선택하여 그 동작의 가장 현저하게 지각되는 부분을 수어의 형태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추상적 어휘들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동작들 중 수어 사용자가 어떠한 동작을 선택하고 이들 동작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수어의 형태

가 결정되므로, 수어 사용자의 특별한 사회적 · 문화적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들은 도상적 사상에서 은유적 사상을 거쳐 추상적 어휘의 은유적 의미가 완성되는데, 이때 도상적 사상과 은유적 사상에서 개념적 환유와 개념적 은유가 가장 주요한 인지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의 추상적인 수어 표현들은 비교적 간단한 인지 과정에서부터 여러 유형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은유적 의미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즉, 환유(문제), 은유와 환유(수집), 환유와 은유(판단), 은유와 또 다른 은유(정답, 도출, 해결), 다중 환유와 은유(정보), 환유와 다중 은유(파악)의 결합의 형태로 수어도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인지 기제의 작용을 통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을 '문제 파악, 정보 수집, 분석, 이해 및 판단, 정답 도출, 문제 해결'과 같이 설정하고, 수어에서 이러한 추상적 어휘들이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통하여 수어의 형태와 의미를 형성하는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수어 표현들은 대부분 '동작 기반' 도상적 수어로서, 추상적 개념을 하나의 구체적 '물건'으로 개념화하는 존재론적 은유가 수어의 은유적 사상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념적 환유와 개념적 은유가 수어의 추상적 어휘를 구축하는 주요한 인지 기제이며, 수어도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단한 인지적 과정에서부터 여러 유형의 복합적 인지과정을 거쳐 추상적 의미가 완성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희섭 (1996). 한국 표준 수화의 자연언어성 고찰: 음운론을 중심으로.「언어과학」, 3권, 25~42.

남기현 (2007). 한국 수화의 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권 3호, 45~68.

석수영 (2016). 수어의 구조와 의미 간의 상관성 고찰: 한중 신체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6권, 151~173.

윤병천 (1997). 한국 수화의 조어법. 「한국수어학회 연수회」, 1권, 12~20.

이지연·최영주 (2024). 한국수어에 나타나는 공간도상성의 은유적 확장. 「언어」, 49권 1호, 153~172.

임지룡 (2022). 수어의 비유적 도상성. 「한글」, 83권 3호, 733~772.

임지룡·송현주 (2015). 한국수어의 동기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49권, 59~85.

조주연·정유진 (2023). A형 수어의 도상성과 은유, 「Journal of Korean Culture」, 60권, 101~126.

최영주·양선아 (2023). 은유적 부각의 측면에 나타나는 문화적 상대성: 한국수어 [소화하다]의 은유적 의미 확장을 중심으로. 「언어」, 48권 4호, 971~989.

최화니 (2019). 한국수어의 시간 은유에 대하여 –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20권 1호, 145~188.

Barcelona, A. (2000).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Deuchar, M. (1990). *Sign language: The study of deaf people and thei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mmorey, K. (1996). *The confluence of space and language in signed languag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Fauconnier, G. (1997). *Mappings and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bbs, R.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nowles, M. & Moon, R. (2006). *Introducing metaphor*. London: Routledge.

Kovecses, Z. (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akoff, G. & Johnson, M. (2003). *Metaphor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 & Turner, M.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iddell, S. K. (1984). *Thinking and signing: A study of American Sign Language*. Dordrecht: Springer.

Meir, I. & Cohen, A. (2018). *Grammaticalization in the visual modality: American Sign Language and Israeli Sig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dden, C. (1988). *Interaction of morphology and syntax in American Sign Languag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Panther, K.-U. & Thornburg, L. L. (2007). Metonymy. In Dirk Geeraerts & Hubert Cuycken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pp. 236-263). Oxford University Press.

Stokoe, W.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Maryland: Linstok Press.

Taub, S. F. (2001). *Language from the body: Iconicity and metaphor in American Sign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gerer, F. & Schmid, H.-J. (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2nd edition.). London: Longman.

Wilcox, S. (2000). *Metaphor in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임수진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천마학부대학 교양학부 부교수
전 화: (053) 810-7827
이메일: parler-moi@hanmail.net

논문접수: 2024년 11월 30일
수정완료: 2024년 12월 18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7일